

행복해지는 연습

조갑 트롱과(티베트 승려)

<6> 프라즈나 :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다

“분별심 버려야 전체를 볼 수 있다”

나로파는 승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당신들은 명상 센터 회원이 되었다. 나로파는 승원의 일원이 되었고, 그것은 당신이 이국 명상센터의 일원이 된 것과도 같다. 그리고 나서 매우 흥미롭게도 수행을 하던 중 당신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공격심이 일어난다. 거대한 분노와 원망이. 그런 공격심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 뿌리를 찾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이 공격심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어떤 꼬임에 넘어가 수행 환경의 일원이 된 데서 나오는 공격심이다. 그 공격심은 만사행통, 즉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는 않는다. 이런 공격심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실은 거대한 자각이 있다. 거의 명상 수준에 가까운 공격심과 원망에 대한 물입이 일어난다. 당신은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명상 선생님이 당신에게 사리에 맞지 않은 가르침이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 등등 말이다. 어느 정도 역경기도 하다. 그래서 수행 도중에 가끔 그만둘까, 이곳을 떠날까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그리고 당신이 떠나는 장면을 아주 자세히 마음속에 연상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망설임도 있다. 어떤 경우는 떠나는 일 자체가 너무 커 보여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겁나기도 한다.

이 모든 종류의 공격심이다 우리가 고통과 고통의 진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도, 더 이상 잊어버릴 수도 없는 확실한 것으로 깨닫기 시작한 후에 일어난다. 이 고통은 실제 고통이다. 당신이 이를 체휼하는 것은 당신이 배운 가르침이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당신의 실제 고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당신은 감옥에 갇혀버린 기분이 된다. 당신이 발견한 것이 이 책에서 배운 것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고통의 존재를 깨달음으로써 이를 감내해버리는 것은 전혀 유쾌하지가 않다. 동시에 당신이 실로 진리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가망성이 있지만 행복한 결말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 상황은 생각할수록 점점 더 끔찍해진다. 그것이 바로 공격심이 가는 행로이다. 당신은 무언가가 원망스럽다. 세상이, 또는 책이, 사람들이, 환경이, 삶의 방식이 원망스럽다. 동시에 당신 자신의 존재가 원망스럽다. 당신 자신이 고통의 창조자이며, 당신은 그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점점 더 암울해진다.

발을 뺀어 가장 가까이 있는 탁자나 의자를 발로 걷어차 보아도 별로 시원해지지 않는다. 동료들에게 무례하게 굴어보아도 마찬가지다. 웬일인지 음식을 트집잡아보아도 별로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다. 불가 피한 우울증, 알 수 없는 암울함, 그것도 매우 막강한 우울함이 분노와 원망과 함께 찾아온다.

당신은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질문해본다. 이것은 나쁘다고도 좋다고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있다. 그것은 분명 존재한다.

그 모든 분노와 원망과 고통, 우울함과 성적 불만과 금전적 문제, 즉 우리 머릿속을 빙빙 맴도는 온갖 것들은 한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 한 가지 좋은 메시지, 진정 좋은 메시지, 우리 안에서 이제 막 발견하려는 보석이 하나 있다. 그것이 고통을 없애주고 행복을 가져온대서 좋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미묘한 고통이지만 동시에 거대한 보석이며, 그 안에 엄청난 풍요와 놀라운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그것의 이름은 지성이다. 당신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 무언가를 탄생시키려 하지만 낳을 수 없는 고통은 바로 지성이 이제 막 태어나려 한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이다.

나로파의 경우 그는 승원 안의 비좁은 방에 갇혀 있었다. 전통적으로 수행자에게는 사방 8자(3m)의 방이 주어진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정에 잠자리에 든다. 승원의 안마당에서는 밤중에 커다란 죽비를 든 스님이 지켜서서 모든 사람이 졸거나 자지 않고 공부하는지, 경전을 외고 있는지 감독한다. 나로파는 석유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독서를 한다. 경전을 읽고 외고, 그 내용에 관해 명상을 한다.

승원 안에서 유일한 기본 전환은 공부하는 과목이 바뀔 때나 명상 기법을 바꿀 때뿐이다. 당신은 명상을 한다. 이윽고 종이 울린다. 그때 당신에게 유일한 휴식은 공부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공부한다. 그러다가 종이 울리면 유일한 휴식은 명상으로 되돌아가는 것뿐이다. 승원 안에서의 식사는 뭐 대단할 것도 없다. 실은 마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할 수 있다. 규율 담당 스님이 언제 어느 때 나타나서 마음챙김이 부족하다고 질타할지 모른다. 뛰지도 달리지 못한다. 마음챙김 속에서 걷고 조용히 이야기한다. 소리를 질러도 안 된다. 심지어 나눠조차 안 된다.

나란다대학에서의 삶은 매우 위엄 있고 본질적으로 건전했지만 동시에 매우 고된 삶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원망은 프라즈나를 가져온다. 나로파와 아티샤 및 사하라 처럼 당대의 많은 위대한 스승들이 다 그런 환경에서 배출되었다. 원망이 프라즈나로 바뀌는 것이다.

프라즈나는 산스크리트어이다. ‘즈나’는 ‘지식’을 의미하고 ‘프라’는 ‘최상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프라즈나는 최상의 지식, 또는 더 큰 지식을 의미한다.

프라즈나를 지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무신론적 종교인 불교 전통에서는 지식이 먼저 오고 지혜가 나중에 온다. 지혜는 응시와 관련이 있고 지식은 불과 관련이 있다. 지식은 보는 것, 즉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보는 법을 배우야 한다. 보는 법을 다 배운 후에는 지혜의 차원, 즉 궁극적 차원에 있는 응시를 하기 시작한다.

프라즈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먼저 보는 훈련을 하지 않은 채 응시를 한다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응시할 수 없다. 당신이 그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자각과 훈련의 문제이다.



분노·우울감이 머릿속에 감돌면
내 안에 알음알이 있다는 뜻
분석적 마음은 자기 믿음 방어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대응

프라즈나에게 있어 지성이란 논리적으로 열려있는 상태이다. 어떤 정보에도 열려있으며 그 정보를 기꺼이 수집하고 씹어보고, 그것을 삼키고 소화시키고, 그것과 씨름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식인들에게 있는 그런 평범한 지성이 아니다. 지식인들의 지성에서는 당신에게 모종의 기준점이 주어진다.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알기 전에 이미 당신은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특정한 원자재가 주어지고 당신은 그 원자재를 이미 당신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특정한 수납장 안에 맞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라즈나의 경우 당신은 원자재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정리할 수납장이 주어지지 않았다. 원한다면 순수 수납장을 만들 수는 있다. 그런 면에서 프라즈나의 경우 모든 것이 흠메이드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즈나가 더 큰 지성인인 것이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것은 논리라는 상대적 기준의 틀 안에서 지성을 연마하는 시스템이다.

“나는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내가 아픈 이유는 나에게 ‘나는 이전에 건강했는데, 기분이 괜찮았는데’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억과 비교할 때 지금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일상의 논리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냉정한 판단력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더 큰 지식, 초월적 지식, 즉 프라즈나의 성품이다. 사물을 감정의 개입 없이 바라보지만 여전히 분별하는.

프라즈나 차원의 고통은 너무나 즉각적이고 너무나 강렬하다. 이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고통의 수위는 비교적 약한 것이다. 실은 여러모로 사치스럽기까지 하다. 프라즈나 차원에 있는 고통은 이전에 만났던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 이전에는 거기에 우리의 지성을 적용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고통스러웠고 고통에 갇혀 있었다. 물론 모종의 지성이 작용하고는 있었지만 프라즈나 차원에서처럼 백 퍼센트 가동은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원적 사고라는 쿠션이 없이 전라의 현실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원성의 개념은 두 개의 개별적인 것들이 각각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원성을 말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원성의 개념은 그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그 한 가운데 그것을 갈라 놓는 커다란 벽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저쪽 칸에 있는 하나됨은 ‘저것’이라 불리고, 이쪽 칸에 있는 하나됨은 ‘이것’이라 불린다. 우리가 만든 수에즈 운하 때문에, 우리가 쌓은 담장 때문에 하나는 둘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비이원성은 두 가지가 녹아들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고 있는 벽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하나의 두 가지 양상이 서로를 만날 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두 가지 개체를 가지는 것에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이원성이 강요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너무나 좁은 곳에 갇힌 기분, 쓰라린 기분이 든다. 이런 하나됨을 만나는 것은 훨씬 더 쓰라리고 훨씬 더 강렬하다. ‘그것’이 ‘이것’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그것’에 적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 벽이 무너지면 그것들은 더 이상의 적용의 여지없이 하나가 된다. 그것이 바로 프라즈나의 경이로 그렇게 쓰라리고 그렇게 즉각적이고 강렬한 이유이다. 극히 강렬하고 엄청나

게 강렬하다. 이런 프라즈나의 차원에서 고통은 우리가 처음 보았던 것보다 100배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방금 고성능 신포 현미경을 입수했다. 그리고 당신의 작은 고통을 현미경 렌즈 아래 놓고 들여다본다. 그런데 거대한 괴물이 보인다. 아직 탄트라 문턱에도 못 갔는데 말이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확대해서 고통을 보는 것이 과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올바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작은 물체를 현미경 아래 놓고 명료하게 보는 것이다.

나로파는 승원 안의 비좁은 방에 있는 것, 늘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호된 훈련을 받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는 언어를 사용하는 법, 의사소통을 하는 법,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토론을 했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경전을 외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매우 편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대승적 관점에서 재발견한 현실 때문에 고통 받고 있었다. 우리는 나로파의 실제 삶의 모습에서 배울 것이 많다. 자신의 지성을 믿는 것을 배울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분석적 마음과 지성적 마음을 구별해야 한다. 분석적 마음에서는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공식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나타나는 현상들에 그 공식을 사용하려 한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그것을 해석한다. 하지만 분석적 마음이 없는 지성적 마음에서는 당신에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공식은 기본적인 논리뿐이다. 즉 당신에게는 정해진 생각이나 패턴이 없다. 당신은 사회적 철학적 종교적 기준에 묶여 있지 않다. 당신에게는 그런 주입된 사상이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현미경 아래 놓고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성적 마음과 분석적 마음의 주된 차이이다. 지성적 마음은 프라즈나와 유사하다.

분석적 마음에 대한 또 하나의 특징은 거기에 약간의 공격심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방어하고 있다. 당신은 무언가를 분석하기 위해 그것을 이미 만들어진 기준점에 맞추려고 한다. 그런데 부품 하나가 사라졌다. 이제 당신은 그 부품에 관한 것들을 공부한다. 그런 다음 그 부품을 찾으려면 당신은 그것을 원래의 본체에 맞추어 끼워야 한다. 그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힘든 일이며, 당신을 완전히 눈멀게 한다. 당신은 전체를 볼 수가 없다.

반면 프라즈나적 의미의 지성은 매우 열려 있는 것이다. 프라즈나에게 특별한 프로젝트가 주어진 적이 없다. 프라즈나에게 있어 유일한 프로젝트는 전체성과 명료성을 보는 일이다. 부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의 몸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프라즈나의 방식이다.

정리=나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행복해지는 연습>(솔바람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 수십년된 명당터 사찰
- 대지 420평, 법당 1동, 요사채 1동
- 공할소일 관계로 조건 맞는 스님께 협의 양도코저 함
- 가액 : 협의 조정

010-4263-0801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 시설 완비, 주차 시설 완비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4천만원

054)931-4449 / 011-543-2161
010-3123-3113

절터안내

- 최고의 명당 절터
- 대지 3000전평 내 가옥 60평 한채
-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이 살아있는 곳
- 대형차 진입가능 • 가액 : 4억

011-9583-3107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 평수 : 374평(종교부지), 강변 야산에 50년된 암자
- 테크노폴리스, 고급기술 산업단지
- 연구시설이 집중된 작은도시
- 재래시장, 정류장은 도보로 10분거리
- 가액 : 2억(절충가능)

010-3536-6333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채명의사찰 가능
• 중당사찰 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5
친절상담

전주 이강욱 ☎ 010-9842-4200
부창 김상민 ☎ 010-7314-2522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조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옹골케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